활기찬 신동엽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49호 1판 (음력 6월 4일)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 급물살 탄 고향세 도입 곳간 빈 지자체 기대감 고조

###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 국회 관련 법안 4건 발의
### 행안부도 법률안 마련중

### 재정자립 20% 이하 대상땐
### 전남도 18개 시·군 포함
### 450억원 세입 확보 예상

'고향세'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고향세가 지방정부의 빈 곳간을 채워줄 '알토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고향세 도입'이 계획만 제시됐을뿐, 방향과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담팀을 꾸려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이지만, 정부조차 의견수렴 중이어서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75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담겨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해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향세 도입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 중이고, 국회에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도시민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통해 농어촌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전재수·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도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수도권 거주자가 소득세액 10%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행안부도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간담회를 열어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고향세' 대상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45만명이 10만원가량 기부할 경우 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향인 300만명 가운데 60%인 180만명을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고향세를 통한 세수증대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대가 큰만큼 전남도의회도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약 실천과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고향세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다.

그러나 고향세 도입까지는 해결과제도 적지 않다.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답답하다"면서 "하지만 고향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만큼 이번에는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야! 신나는 방학이다** 25일 오전 여름방학을 한 광주 북구 각화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방학기간동안 해야 할 일과 계획 등을 적은 시간표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문화수도조성사업 2031년까지 5년 연장 추진

### 송기석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이 개정되면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장기·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사실상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헌법'격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포함해 광주 전역을 '7대 문화권'으로 나눠 대대적으로 문화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 문화·사회단체 등은 이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점을 감안, 법안 유효기간 연장을 꾸준히 정부에 촉구해왔다.

실제 전체 문화수도 조성과 관련된 총사업비는 5조2912억원으로, 이 가운데 23.6%에 불과한 1조2480억원만 집행됐다. 이 사업에 포함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도 5년이나 지연된 데다 '7대 문화권' 등 연계사업마저 지지부진해 2026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박지경·윤영기기자 penfoot@

# 사람 중심 경제…양극화 없는 3% 성장

### 文정부 5년 경제정책 발표
### 소득·일자리 늘리기 주력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부자증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해 양극화 해소 등 분배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정부가 시장 실패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성장 과실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충실히 구현하면 연 3%대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하고서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층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조정 등 실업안전망도 강화한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불공정한 경쟁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기업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차원에서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중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무안출발 일본여행
올 여름 휴가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여름기간 : 2017년 7월 28일(금)~9월 21일(목)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 선착순 한정 특가
항공 4일(매주 월요일, 목요일)
북큐슈 펜션특가 4일 499,000원 부터 (8/1, 8/5, 8/11)
북큐슈 4일 699,000원 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 부터
야마구치 4일 799,000원 부터
큐슈 · 오카사 4일 단, 한번! 799,000원 부터 (8/28)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지불,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실속] 북큐슈 898,000원 부터
[품격] 북큐슈 1,098,000원 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 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 부터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간(3박5일)
8/7(월) 단, 1회! 특가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6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팁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신안마 90분 2회, 바구니배, 바나산국립공원+케이블카,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씨클로, 투본강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 경비
◆ 불포함사항 : 개인 경비, 매너 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웰빙 2박3일
349,000원 부터
7/21(금)~8/20(일)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날짜와 인원 수에 따가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